

여성 노동, 가부장제 밟고 쿵쾅!

✓ 2009.3.8. 제 101회 세계여성의날!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입니다. 101년 전인 1908년 3월 8일에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10시간노동제, 안전한 작업환경, 성·인종·재산·교육수준·노동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선거권을 요구하며 벌인 대대적인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2009년의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908년 미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과 아이들을 위한 재생산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직장이 있더라도 여성은 언제나 그러한 가사노동, 감정노동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기적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지요.

'임노동을 (잘) 하는 사람'은 곧 남성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노동의 종류는 크게 한정되어 왔습니다. '고객'들을 마주하며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상냥'한 태도를 지켜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청소·요리 등의 '집안일'이 필요한 노동은 여성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여지껏 여성들이 '집 안에서' 담당해온 감정·가사노동이므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노동으로 인식됩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참 많죠. 대부분이 비정규노동자인 그녀들은 회사의 의지에 따라 일자리가 좌지우지되는 고용불안정에 시달립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남성 가장이 버텨야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반찬값 벌이'를 하는 것으로만 환원되어, 그녀들에게 제시되는 턱 없이 낮은 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성들은 다른 남자 동료들처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평가되고 성적 대상화되기 일쑤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노동을 보조하고 대체하는 부차적인 노동일뿐인 것입니다.

이렇듯 여성노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노동을 제한하고 그 노동을 가치절하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폭력과 차별이 여성노동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비교적 최근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2005년, 기흥전자의 여성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연장근무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수준, 고용불안정에 대항해 지금까지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은 의사, 간호사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전원 해고되었습니다. 작년 8월과 올 2월, 명지대에서는 '학교 슬림화'를 명목으로 행정조교라는 이름의 실질적인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대량 해고했습니다.

✓ 너희의 '노동'에 장애여성을 가두지 말라

'노동'은 언제나 만들어져 왔다. 사전상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노동이란 임노동, 즉 시장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한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을 말한다. 이곳은 노동을 판매하고 임금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이러한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27.7%인데 반해 장애남성은 57.7%, 비장애여성은 47.9%, 비장애남성은 76.4%로,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지금의 사회가 장애여성의 취업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높은 학력과 일정정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런데 장애여성의 교육기회는 장애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더러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술의 습득 기회마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사 기업에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장애여성의 노동은 끊임없이 불안정해지게 된다. 기업에서 장애여성에게 부여하는 노동은 기존에 여성 노동자에게 맡겨졌던 노동으로, 3C(Coffee, Copy, Computer typing)로 일컬어지는 '보조적'인 노동이다. 이는 대체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언제나 '노동 유연성'의 명목으로 해고대상이 되는 노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이 장애여성에게 부과될 경우, 그녀는 고용과 해고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책상,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품과 화장실, 싱크대와 같은 환경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그녀가 컴퓨터 앞에 앉기도, 시각 장애인인 그녀가 커피를 타기도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 노동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행하는가를 그녀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기준으로 적용당하는 것이다.

장애여성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임노동, '바깥일'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정에서의 '집안일'을 떠맡게 되기 쉽다. 게다가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생적인 존재로 비하되기 일쑤이며,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해도 '느리다'거나 '깔끔하지 못하다'와 같은 비하와 평가절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과의 관계유지와 소통을 위한 감정노동을 과중해서 도맡고 있다. 특히 주위의 사람들이 장애여성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므로 주변인에게 무조건 포용적이어야만 하는 '천사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그에 맞지 않는 장애여성을 비난할 때, 장애여성에게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감정노동을 감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찰해나가야 하는 것은 기존의 '노동' 개념으로는 장애여성의 노동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부풀려주는 것만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한해서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생산능력이 없는 존재', '시혜적으로 보호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이에 대항하여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볼 때,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생활을 위하여 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노동으로 재정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 물을 마시는 것부터 다른 이와 소통하는 것까지, 비장애인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장애여성은 무수한 시간과 정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장애여성의 생활은 차별적인 환경과 왜곡된 사회적 인식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연속으로, 끊임없이 비장애중심성에 대항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 동안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즉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 자체를 장애여성의 노동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가려져 왔던 그녀의 삶을 드러내는 출발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니다. 현재 행정조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여러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위)에서도 함께 명지대 문제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이런 현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은 학교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녀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베풀 정도로 턱 없이 낮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주어지고 있는 업무량은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이 계약된 노동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건물 한두 층을 단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기는커녕, 계약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¹⁾ 여성노동자들에게 추가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학교에 비정규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전까지 학교에 미화노동자를 '제공'하는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정해진 근무 외의 일²⁾을 강제로 시키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었습니다.

학교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이야기' 같지가 않으신가요? 하지만 대학을 나온 '스펙 좋은' 여성들이라고 해서 비정규노동이나 고용불안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학생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감정·가사노동에 대한 부담도 언제나 존재하구요. 여성노동문제는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이자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또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분명히 연세대라는 공간과 공동체를 구성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문제들을 고민해나가기로 해요.

여성의 날이 생겨나고 100년이 지났지만, 지구 반바퀴라는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도 여전히 '여성문제'는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은 '1908년 미국'이라는 시공간과는 다르게 나타날지는 몰라도요. 끊임없이 이런 고민들을 안고 가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배제와 차별을 직시하고 열심히 이를 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일상을 찌렁찌렁 울리기 위해,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1)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은 계약상으로는 8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시에 시작되는 학생·교직원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은 6시에는 출근을 해야 주어진 업무량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2) 예전 일인데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미화직 여성노동자를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거절할 경우에는 노동 강도가 센 건물로 인사 이동을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말이지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들여다보며

올 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은 집행부 전원 사퇴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하다.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의 지도부가 직접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이기에, 이는 언론이 떠드는 것과 같이 '도덕성 상실'의 여부로만 볼 수 없는, 성인지에 대한 집단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일반 조합원인 피해자에게 위원장의 도피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를 거부하자 감시와 회유, 협박과 폭언에 이어 성폭력 가해를 일으켰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사건을 묻을 것을 종용하였으며, 심지어 가해자는 '만취상태였다'고 변명¹⁾했다. 이렇게,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들고, 지도부를 비롯한 (권위있는) 구성원들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수많은 이차가해가 이루어졌다²⁾.

성폭력 가해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가 용인하는 폭력이다. 성폭력 가해와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남성-여성, 성인-미성년자 등), 가해와 피해의 구도(권력-비권력), 가해가 용인되는 정도(추행은 되고 강간은 안 된다) 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폭력이 가능하도록 한 집단의 가부장성을 다시 돌아보며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동체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공론화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민주노총을 사랑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³⁾은 '소중한 조직'만 지킬 수 있다면, '비도덕적'이라는 이미지만 회복할 수 있다면, 성폭력적인 조직의 분위기는 외면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며, 굶아터지는 내부를 성찰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의지에 다름없다.

민주노총이 성평등한 조직을 지향한다고,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한다고 '기치'를 걸면서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을 견지하고, 그를 바꾸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노동'은 남성 가부장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둔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부차적(식구의 주요 수입원이 아닌 반찬값을 벌기 위해 일한다)이고, 보조적(주된 노동을 돕는 하찮은 일을 한다)으로 치부되는 여성노동자는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까지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운동'을 하는 민주노총 구성원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로, 여성 조합원을 동등한 동료, 같은 조합의 구성원, 함께 연대하는 동료로 보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건과 이차가해의 과정이 가능했다.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조직 내부의 성차별과 성폭력적인 분위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나, 이는 공동체적 성찰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묵살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둘이 해결할 일'로 치부되곤 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행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과에서, 반에서, 동아리에서, 단체에서, 공고한 남성중심성과 성별권력에 기반한 폭력, 그리고 그것을 존속시키는 가부장성은 이런 방식으로 외면되어왔으며 '문제'로 드러날 수 없었다. '지금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잘못을 덮고 활동을 유지시키려는 시도와 그것을 위해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피해 사실을 외면하는 행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만' 격리시킨다는 기계적인 처리방식에 문제제기할 경우 '너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했는데 뭘 더 원하냐'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태도, 그리고 성폭력의 해결보다는 집단의 이미지 실추를 막는 것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도부(집행부)와 가해자가 '잘 몰라서', '개념이 없어서', '좀 이상해서', '자유분방한 애라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믿고 떠들며, '원하는 만큼 못 해줘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한다는 것은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집단에서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는 함께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의 가부장성을 성찰하는 것, 내부의 성별권력을 인식하고 해체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적인 분위기와 문화에 반대하는 것은 누군가 갖추거나 갖추지 않아도 되는 '매너'로 치부할 것이 아닌, 공동체의 윤리를 성인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물꼬를 트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밤길 조심하라는 말에 대하여

얼마 전까지 뉴스를 틀기만 하면 강호순 사건이 보도되었죠. 여러 명의 여자를 납치해 성폭행 후 살인했다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결론은 '그러니 밤길을 조심해라'였지요. 근데, 그래서, 밤길이 위험해서, 여자들이 조심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위험한 밤길에 여자들은 없고 아저씨들만 다니면 '이제 참 안전한 밤길이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성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없애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밤길을 위험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진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성들이 밤길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건 실제로 도처에서 여성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성폭력, 살인과 같은 여성혐오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가장 극단적인 폭력적 형태로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성혐오범죄를 걱정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조장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이 사회에 적응할 것을 종용합니다. 밤길이 여성에게 위협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식인 것이죠. 여자면 정숙하고 조신하게 일찍일찍 다녀야지! 하는 통념과 남자가 공격적인 건 남자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 아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고 성별권력관계는 가려지죠.

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은 여성혐오범죄들을 매우 선정적인 방식으로 보도하면서 여성들에게 더욱더 큰 공포를 심어주고 있어요. 여성혐오범죄를 조장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하기는커녕, 범죄자가 긴 생머리 여성만을 범죄대상으로 했다가 성매매 여성만을 노렸다가 하는 식으로 하나의 가십거리로 사건을 전락시키면서 여성들에게 밤길을 조심하라고 충고하죠. 이렇게 여성에게 끊임없이 밤길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성폭력에 대항하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상정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로서 여성을 타자화시키죠. 그리고 이는 일상적으로 공포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별권력관계 자체에 문제제기하기보다 여성 개인에게 피해의 책임을 지우고,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끊임없이 통제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안전을 조금도 보장해주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집에서도 일어나고 밤길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밤길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겠죠. 게다가 여성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성별권력관계가 바뀌지 않는데 여성 개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사그라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안일한 생각인 거죠.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적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정말 유별난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본질적인 원인을 또다시 숨기거든요. 강호순 같은 범죄자를 일일이 잡아 처벌한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질까요?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 하에서 여성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약자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폭력은 계속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성 범죄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강간, 살인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권력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쾌감을 느끼려고 했다는 것 역시 여성혐오범죄가 성별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성별권력관계 자체를 문제 삼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개개 범죄자를 처벌하여 여성혐오범죄 발생을 막으려는 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조장하는 이 사회라고 까발려야 해요. 성폭력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운이 나빠서 걸리지 않도록 여자들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회가 성폭력이 일어나는 배경을 깔아주는 거라고 말해야만 하구요. 우리에겐 밤길을 마음 놓고 활보할 권리가 있다!! 강호순 같은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가부장제 사회가 문제다!!!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 어이없는 놈들아!!!

1)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가해자는 취한 기색이 없다.
2) 사건 공개 이후에는 눈에 확 띄는(가해 행위와 당사자들의 신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사를 원하는 기자와 독자의 욕망, 그리고 성인지적 인식이 부재한 국가 기관의 조력(피해자가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기자들은 국정원, 경찰청,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폭력적인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다)으로, 더 많은 이차가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3) 성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문 중

함께 가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도 올해로 벌써 25년째예요.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 슬로건과 함께 열리는 25회 한국여성대회!
3월, 8일,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려요!
전국에서 모인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픈 모든 사람들이 청계광장 일대를 가득 채운답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3월 8일 일요일 1시! 함께 가는거 어때요? 괜찮죠?^^

